



국가AI전략위, KAI와 국방 AX 가속화를 위한 항공 AI 생태계 조성 및 군사혁신 방안 논의

- KAI, 항공 중소기업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 지원 요청
- 단기간 내 가시적 국방 AX 성과 창출을 위한 K-무인기(LUCAS) 운용 제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4월 7일(화) 오후, 사천에 위치한 KAI (주)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하여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국방AX 가속화를 위해 방산기업 임원진, AI 개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부처의 정책수립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심승배 국방·안보분과장, 김종출 KAI 사장 및 임원진이 참가하여 항공분야의 국방 AX 가속화를 위한 AI 생태계 조성 및 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KAI 김종출 사장은 항공 중소기업들의 AX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KAI는 AX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항공 관련 중소기업들은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이다” 언급하며, “KAI 자체적으로도 항공 중소기업들과 자체적 상생협력 노력을 하겠지만,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 건의하였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루카스(Low-cost Unmanned Combat Attack System)와 같은 무인기는 우리나라의 산업역량으로 충분히 단기간 내 생산 가능하며, 우리군은 이러한 무인기를 조기에 도입하여 활용하면서 전투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KAI가 제안한 항공 중소기업 대상 AX 전환 지원을 검토하고, 우리군이 K-루카스와 같은 무인기들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활용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색하기로 하였다. 끝.



간담회 후 임문영 부위원장과 KAI 임원진들이 KF-21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I혁신팀	책임자	팀 장	서영지 (02-2224-4161)
		담당자	해군중령	안재희 (02-2224-4168)